

조선대 태권도 국대 3명 '역대 최다'

박혜진·이기범·임홍섭 태극마크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1·2위 차지
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 활약 기대

조선대학교 태권도팀이 국가대표 3명을 배출했다.

7일 조선대학교 태권도팀에 따르면 최근 경남 함양군 고운체육관에서 열린 2021년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선발 최종대회에서 박혜진·이기범·임홍섭(이상 태권도학과)이 태극마크를 손에 넣었다.

조선대는 50여년 만에 가장 많은 3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진(4년)은 여자부 -53kg급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여자부 최강자인 박혜진은 지난 2019년 -49kg급 국가대표를 지냈으며, 이번에 체급을 올려 태극마크를 두번째 달았다. 박혜진, 이예린(한국체육대학), 한소정(서울관악고), 허민아(삼성애스원)를 상대로 무결점 경기를 펼치며 최종전적 전승으로 국가대표 1진으로 확정됐다.

이기범(4년)은 남자부 -63kg급에서, 임홍섭(3년)은 +87kg급에서 각각 2위를 차지해 국가대



박혜진

이기범

임홍섭

표로 선발됐다.

이기범은 최종전적 2승1패를 기록했으며, 임홍섭은 최종 전적 4승 1패로 각각 국가대표 2진으로 뽑혔다.

이기범은 -63kg급에서 세계 정상권의 기량을 갖춘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임홍섭은 다크호스로 꼽히는 선수로 분류된다.

김병기 감독은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국가

대표 선발이라는 결과를 얻어 뜻깊다. 다양한 국내 대회 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박혜진과 이기범은 세계 정상권 기량을 갖추고 있어 국가대표로서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오는 23일 평가전을 거쳐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막았다 6일(현지시간) 열린 NBA 밀워키와 클리블랜드 경기에서 밀워키의 아니스 아데투콘보(왼쪽)가 클리블랜드 아이작 오코로의 슛을 블로킹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 US오픈테니스 우승자 팀, 한국 오나

내년 3월 열리는 데이비스컵 예선 출전 가능성

2020년 US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우승자 도미니크 팀(15위·오스트리아)이 국내 팬들 앞에서 경기할 가능성이 생겼다.

남자 테니스 국가대표전 데이비스컵 2022년 대회 예선 경기 대진이 6일 정해진 가운데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3월 4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대결한다.

오스트리아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팀은 2020년 US오픈에서 우승했고, 최고 랭킹은 3위까지 올랐던 팀 랭커다.

2018년과 2019년 프랑스오픈에서 준우승하며 클레이코트에 강한 면모를 보이는 선수고 하드코트인 US오픈에서 2020년 우승, 같은 해 호주오픈 준우승 등의 성적을 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경기에서 이긴 나라가 세계 16강 격인 데이비스컵 파이널스에 진출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로서도 정예 멤버를 꾸려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오스트리아는 팀 다음으로는 세계 랭킹 117위 테니스 노박, 135위 유리 로디오노프, 192위 제바스티안 오프너 순이다 53위 권순우(당진시청)가 버티는 한국을 이기려면 팀이 필요하다.

물론 오스트리아는 복식에도 세계 100위 내 선수 3명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이 더 강하기는 하다.

우리나라는 권순우 다음으로 단식 392위 이덕희(세종시청), 복식 215위 남지성(세종시청)이 가장 높은 순위다.

팀은 올해 6월 이후 손목 부상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비스컵에는 2019년 9월까지 뛰었고 2020년 3월 우루과이전과 올해 11월 경기에는 불참했다.

2022년 세계 16강인 파이널스에는 예선에서 이긴 12개 나라와 러시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영국이 출전한다. 러시아와 크로아티아는 올해 대회 우승과 준우승국이고, 세르비아와 영국은 와일드카드를 받았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육상 100m 우승 제이컵스, 내년 2월 다시 뛰다

우사인 볼트(35·자메이카) 은퇴 후 처음 열린 올림픽에서 육상 100m와 400m 계주 우승을 차지한 리몬트 마르셀 제이컵스(27·이탈리아)가 긴 휴식을 마치고 내년 2월부터 트랙 위에 선다.

로이터통신은 7일 "제이컵스가 2022년 2월 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이컵스는 8월 8일 막을 내린 2020 도쿄올림픽 이후 휴식을 취했다.

제이컵스의 매니저 마르셀로 마니냐는 "제이컵스의 몸 상태는 아주 좋다. 부상 위험을 줄이고자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컵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프린터' 볼트 은퇴 후 처음 열린 올림픽에서 100m 챔피언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애초 그는 이탈리아 언론에서조차 메달 후보로 거론하지 않았던 스프린터였다.

그러나 8월 1일 일본 도쿄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결선에서 9초80으로 우승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개인 최고 기록은 9초95였다. 이 기록도 올해 5월에 세웠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이 시작하면서 제이컵스는 무서운 속도로 기록을 단축했다.

이탈리아 선수가 올림픽 육상 100m에서 결선에 진출한 건 제이컵스가 처음이었고, 단숨에 이탈리아가 최초 올림픽 육상 100m 메달리스트도 됐다. 제이컵스는 8월 6일 남자 400m 계주에서도 마지막 주자로 출전해 도쿄올림픽 2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7일 스페인 그라노예르스에서 열린 제25회 국제핸드볼연맹(IHF) 세계여자선수권대회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한국의 김진이(오른쪽)가 덴마크의 공격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핸드볼, 조 2위로 결선리그 진출

세계선수권 덴마크에 23-35 패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덴마크에 겨 조 2위로 세계선수권대회 결선리그에 진출했다.

한국은 7일 스페인 그라노예르스에서 열린 제25회 국제핸드볼연맹(IHF) 세계여자선수권대회 6일째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덴마크에 23-35로 졌다.

2승 1패로 조별리그를 마친 우리나라는 조 2위로 결선리그에 올랐다.

경기 시작 후 5분까지 2-2로 맞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강팀 덴마크를 상대로 이후 연달아 3골을 내줘 2-5로 끌려가기 시작했고, 이후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점수 차가 벌어지는 양상이 계속됐다.

전반 20분 정도에 11-8에서 상대 2분간 퇴장 등으로 점수 차를 더 좁힐 기회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한 장면이 아쉬웠다. 에이스 류은희(형가리 교리)가 9골로 분전했다.

F조에서는 덴마크와 한국, 콩고가 1~3위로 결선리그에 올랐다.

조별리그 성적을 안고 E조에서 올라오는 독일, 헝가리, 체코를 상대해 조 2위 안에 들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G조의 일본은 크로아티아를 28-26으로 꺾고 역시 조 2위로 결선리그에 진출했다.

한국은 직전 대회인 2019년 일본 대회에서 11위에 올랐고, 2009년 중국 대회 6위 이후 12년 만에 8강 진출에 도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연애 빠진 로맨스
- 2관 유체이탈자
- 3관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 4관 돈 룩업
- 5관 연애 빠진 로맨스
- 6관 유체이탈자
- 9관 엔칸토: 마법의 세계, 이터널스
- 7관 씨네캐슬 돈 룩업, 태일이, 심계, 라스트 나잇 인 소호
- 8관 씨네캐슬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 둔, 라스트 나잇 인 소호, 이터널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특별기획공연
바리톤 김기훈 독창회
일시 : 2021.12.13.(월)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GAC기획공연 포커스
어린이 무용 <루돌프>
일시 : 2021.12.19.(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즐거움
문화
산책

